

조계종 포교원장



해충 스님 원택 스님

조계종 제14대 전반기 중앙총회의 첫 개원을 앞두고 이번 총회에서 '임명동의' 될 제5대 포교원장을 누가 맡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원택, 해충 스님이 거명되고 있다.

원택 스님은 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총무원장 스님이 역직을 두고 있는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이다.

해충 스님 또한 (사)동원 총재를 비롯해 사회복지법인 불국도 이사장, (사)잡어불교운동본부 이사장 등 다양한 사회활동이 장점으로 꼽힌다.

원택 스님은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같은 해인사 문중이고 해충 스

누·가·될·까?

포교원장 해충·원택 스님 활동력 담보로 '원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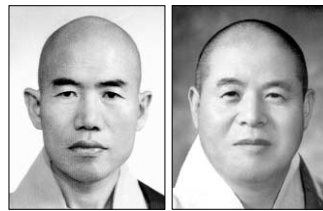
총회의장 보선·자승 스님 자천타천 '물밑작업'

남은 지관 스님의 상좌라는 점에서 두 스님 모두 '정실 인사' 여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포교법'에 따르면 포교원장은 승랍 30년 이상, 연령 50세 이상,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로서 행해가 청정하고 학식이 탁월해 포교에 관한 높은 식견과 경력이 있는 자로서, 총무원장의 추천으로 중앙총회에서 선출한다.

11월 13일 개원 첫날 재직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될 중

회의장 선거도 초미의 관심사다. 일찍부터 중앙총회 의장 출마 의사를 밝힌 보선 스님은 3일 기자회견에서 "개력종단 이후 중회개 제기능을 못했다는 평도 있는데 종단 발전을 이끌어 가는 화합총회를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선거 과정에서 제 기능을 못한 법령들을 승가에 맞게 개정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총력모인인 금강회와 보림회 스님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보선 스님은 제

제14대 중앙총회의장(전반기)



보선 스님 자승 스님

13대 중앙총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다.

보선 스님 이외에 출마 의사를 밝힌 스님은 아직까지 없지만 이번 총회선거에서 대 약진을 한 총책모인 화합회의 자승 스님과 지명 스님도 거론되고 있다.

자승 스님은 "아직까지 출마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총회 개원이 전까지 스님들과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말해 하마평을 부인하지 않았다. 자승 스님은 3선 총회의원과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그러나 타천으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지명 스님은 "출마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김두식·남동우 기자

지안 스님 강맥 전수

10일, 은해사에서 7명에



지안 스님

조계종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사진)이 처음으로 후학에게 강맥을 전한다. 지안 스님은 11월 10일 오전 11시 은해사 대웅전에서 승가대학원 제3기 졸업생인 현봉 양관 자승 덕선 보문 스님과 정목 신희 스님 등 7명의 후학에게 강맥을 전한다.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으로부터 강맥을 이은 지안 스님은 통도사 강원을 졸업하고 10년(1978-1988)간 강주를 역임했다.

일연태 기자

통도사 신중총회 성원 미달

통도사 신중총회가 또 무산됐다. 통도사는 공적증인 방장선출을 위해 11월 2일 오후 2시 신중총회를 소집했지만 개회 정족수인 196명에 못 미치는 166명이 참석해 총회가 무산됐다.

이날 신중총회가 유회되자 주지 직무대행 산용 스님은 "주지 직무대행을 맡은 3개월 이내에 산중을 정상화하기 위해 산중총회를 서둘렀으나 오늘 이렇게 유회돼 안타깝고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천미희 기자

제3기 수강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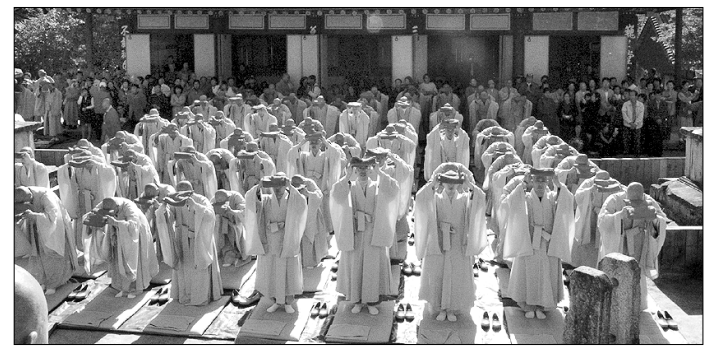
불교서울전문강당

조계종 교육원 부설 불교서울전문강당이 제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스님 50명과 일반인 20명이며, 서류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수학 희망자는 △인화원서 1부 △반명합관 사진 3매 등을 첨부해 11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교육원(02-2011-1810)으로 접수하면 된다. 포교사인 경우 포교사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불자인 경우 신도증 사본 또는 수계증명, 불교교양대학 졸업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사찰 주지 수료자는 당해연도 분말사주지 연수교육이 면제되며, 2001년 이후 구직계 수지자는 2년 4학기 과정을 모두 이수할 경우 3급 승가교사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불교서울전문강당은 전통 강원교과목에 대한 출·재가의 교육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원전 강의를 개설해 2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과목으로는 <초발심자경문>(서장) <도서> <육조단경> <선요> <원각경> <능엄경> <금강경> <기신론> <화엄경> 등이 있다.

남동우 기자



10월 31일 선암사에서 봉행된 제30기 합동득도 수계산림 모습.

태고종 예비승려 173명 '합동득도'

선암사 금강계단서

태고종은 10월 31일 순천 태고종립 선암사 금강계단에서 '제30기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회향하고 사미 130명 사미니 43명 등 173명의 예비승려를 배출했다. 특히 이번에 배출된 예비승려 중에는 SBS 모나운서의 아버지도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동방불교대학장 법장 스님을 교수사로, 사정원장 월운 스님을 감사사로, 총무원장 운산 스님을 전계사로 실시된 수계식은 조사이운, 삭발 의식, 연비의식, 가사정대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법문을 통해 "세속의 탐·진·치 3독을 여의고 자신을 청정히

하여 증생제도와 전법도생을 다하는 수행자로 새롭게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교육은 10월 8일부터 매일 1천배 정진, 1보배, 기초승의, 예경 의식 부처님의 생애, 태고종지종승, 초발심 자경문, 기법승의 및 율의문, 태고종사, 불교기초교리, 예경의식, 불교분류사, 참선개요, 불교학 개론, 유교경 강설 등의 강의와 득도고시로 진행됐다.

이번 수계 득도 법회에 참석한 행자들은 27일 사후 장기 및 시신 기증 서약과 함께 헌혈 행사를 가졌다. 행사장 173명은 대웅전 앞 만세루에서 생명나눔 실천본부 광주지사에 장기 및 시신 기증서를 전달했다.

김주일 기자

선암사 '물리적 충돌' 재연

3일 전주지축 중무소 접수

태고종 선암사 사태가 해결기미 없이 표류하는 가운데 전주지축 신도들이 중무소를 점거해 또다시 물리적 충돌이 재연됐다.

이번 사태는 11월 3일 오후 1시경 선암사 경내에 있던 전주지축 신도 150여명이 몰려와 20여일간 중무소를 장악했던 전주지축 스님들을 밖으로 몰아내면서 비롯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스님들이 부상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축 대변인 겸담 스님은 "그간 보여준 총무원측의 무성리한 태도는 협상의 여지조차 남겨주지 않았으며, 앞으로 대화를 통한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측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인도들까지 동원한 것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총무원장 남정 스님 유임

총회종 대폭 인사

대한불교총화종(총무원장 남정)은 11월 2일 총본산 수진사에서 59차 중앙총회를 개최하고 임기가 만료된 총무원장을 비롯해 간부급 스님들의 인사를 대폭 단행했다. 제 14대 총무원장에는 현 원전 남정 스님이 만장일치 유임됐다.

남정 스님은 총무원장 남정 스님 △문화원장 도명 스님 △교육원장 남은 스님 △조계종장 혜가 스님 △선원장 청해 스님 △선거관리위원장 고담 스님 △사회부장 대담 스님 △호법부장 민호 스님 △삼찰위원장 해담 스님 △포교원장 고훈 스님 △기획실장 현오 스님 △총무부장 남오 스님 △교무부장 설오 스님 △재무부장 지산 스님 △조식부장 여산 스님.

불국·관음사 재선거, 금산사 보궐

3일 중앙선거관 결정

조계종 제14대 직선직 교구총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46명의 스님들이 전원 당선 확정됐다. 선거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었

던 불국사와 관음사는 재선거가, 금산사는 보궐선거가 결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공)는 11월 3일 중앙총회 본회의실에서 제168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두식 기자

중앙선거위원회 징계요구

실천승가회 입장발표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통의장 성관·효림)가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11월 2일 발표한 '개원을 즈음한 우리의 입장'에서 실천불교승가회는 "중앙선거위 환란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중선위원회에 대해

서 단호하고 신속한 징계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실추된 종단의 기강과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독단적 전횡을 통해 물의를 일으킨 중앙선거위를 중단에 정식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실천불교승가회는 "종도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종도들이 고견을 제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봉영 기자



오현(맨 왼쪽), 진허 스님과 백담사 경내를 둘러보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맨 오른쪽).

"불교의 포용력 배우러 왔습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백담사 등 방문

한나라당 대권 유력 주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실악 불심'을 찾았다. 이 전 시장은 10월 31일 오후 만해마을을 방문, 신홍사 회주 오현 스님 등 지역 스님들을 만났다.

이 전 시장은 "한 세대 전에는 대부분이 불교적 정서 속에 살았지만 지금은 세월과 인연을 따라 다른 중

교를 믿고 있다"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도된 종교편향적인 사인들과 관련해 불교의 포용력을 배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만해마을에서 묵은 이 전 시장은 1일 오전 백담사와 낙산사를 방문했다.

일연태 기자

동국대 총장 공개모집

동국대가 차기 총장을 공개 모집한다. 응모자는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교·직 원, 불교계(조계종 재직스님), 동문을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교수일 경우 10년 이상 동국대에 재직해야 한다. 11월 16일 오후 5시까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직접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남동우 기자

Modern Buddhism, Living Buddhism, Modern Buddhism, World Buddhism. Contact information for the editorial team and advertising rates.

Busan Buddhist Guide Forum. A large advertisement for a forum featuring a list of speakers and topics. The list includes names like Kim Hong, Kim Jun-gu, Kim Jin-seon, etc., and topics like 'The Role of Buddhism in Modern Society'.